

SH 정보공개 모니터링 1차 발표

3조 김다솜 박소영 이지희 홍사훈

1. 홈페이지 정보공개 항목 모니터링 결과

* 홈페이지 아쉬운 점

- 청구자가 SH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기 위한 경로 찾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.
(메인이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아이콘 같은 링크를 통해 바로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.)
- 비공개 문건에 비공개 사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.
(사유표시 필요함)
- 결재문서 원문공개 페이지 상단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편리했지만 문서를 열람한 후 돌아가면 다시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온다.4
(다시 기간을 설정해야하는 불편함과 이전에 열람했던 페이지가 아닌 1페이지로 돌아가 다시 검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.) -> 검색하기에 불편함이 있다.
- 그 밖의 부분공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문서 내부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, 같은 페이지가 존재하고, 문서 검색 기간에 해당하는 문서가 나타나지 않거나, 문서 목록 연계부족, 문서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가 나타났다.

2. 그 밖에 정책 제안

- 문서목록공개 페이지 내 카테고리 분류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.

-> 문서목록공개 페이지에도 현안별, 부서별 등의 중간 분류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청구자가 정보공개 포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, '정보공개 개요'페이지에 있는 정보공개포털 링크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편을 겪는다. 현재 대한민구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.

-> 자체적 정보공개청구 페이지 개설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. 또한, 해당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SH공사 메인 홈페이지의 아이콘 등 바로 정보공개청구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.

-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. (특히 중복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안)

-> 청구자가 청구할 때 키워드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비슷한 내용이 검색되면 바로 그 데이터 정보 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중복청구를 막는 정책

-> 업무 담당자가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구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도 바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할 수 있게 하거나, 거절 의사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.

-> 중복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있는 데이터와 다른 청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, 관련 내용을 쉽게 사전에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.

